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2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12月5日(火) 10時00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1.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案)(繼續)(鐘路區廳長 提出) 1面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河徹昇 都市管理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미나에서 익히 들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 관점 중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 운영의 위기적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재임기간 동안 지방재정 운영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실천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정부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담을 예측 가능케 함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연동계획의 수립과 내실있는 심사분석제도의 운영을 통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착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고견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에 임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12월 4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金福同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圭圭景課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鄭鎭皓課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李漢求課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兪樂濬課長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都市管理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44쪽 그리고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입총액은 2억 9,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택이행강제금과 건축이행강제금 그리고 파태료 그 다음에 공원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이행강제금 1억 6,05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6,591만원, 광고물파태료 3,312만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사용료 및 가로수 변상금 3,22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67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4,9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예산과에 통합 편성하던 급식비와 여비를 과 단위로 편성함으로써 2억 7,416만원의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 도시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16쪽에서 4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2,781만원을 계상해서 작년과 비교해서는 1억 1,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급량비와 여비 7,112만원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구입과 직원급식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880만원, 여비로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해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현장을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해서 저희들이 이행표준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기한 내에는 처리했다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거나 한 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약 5천 원 상당의 전철 승차권이나 전화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용역철거 발주하기 위해서 2,724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7,991만원이 계상되어 전년에 비해서 9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급량비 편성액 5,616만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4,705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5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인 국내여비는 3,12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6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대집행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장비인 도시계획용 카메라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구적기, 광고물업무용 노트북, 캠코더, 문서세단기와 벽보제거기 등의 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건축과는 9,89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2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던 급량비와 여비 4,968만원을 과에 배정하여 증가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3,710만원

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416쪽에서 418쪽 예산 내역별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6,154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와 그리고 건축위원회 및 북촌마을·인사동 상설위원회 그리고 북촌마을 건축자문수당인 운영수당과 직원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00만원을 편성해서 행정서비스 현장 미이행시 보상을 적극 실시하기 위해서 주택과와 같은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20억 3,00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6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은 도시공원관리분야와 녹지관리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분야에 9억 5,198만원 그리고 녹지관리분야에 10억 7,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관리분야 소관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3,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용품구입비 중 일반수용비가 2,490만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제세금이 8,971만원, 직원급량비 4,3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직원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월동자재, 비료구매와 공원 등수리 및 부품구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6,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6쪽입니다. 사유공원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시비보조금으로 1억 6,652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유공원 꽃묘구입비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역시 재료비를 7,447만원을 시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구소유 근린공원 투자사업비로 3억 5,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보고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에 1억원, 지하수개발비로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녹지관리분야 일반운영비는 1억 7,301만원으로 경

계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184만원, 기타 연료비 1,235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종묘광장 등, 공원 등 수리 및 교체에 978만원 그리고 생명의 나무 수목구입 3,000만원, 꽃묘구입비 1억 4,910만원 등 재료비로 2억 6,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인부임으로 1억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비로 4,0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기념공원 조성비로 2억 5,000만원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저회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도록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0年度 主要業務推進現況 및 2001年度 主要業務推進計劃

(都市管理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먼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왕, 북악산길 쉼터정비 30억원을 들여서 쉼터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30억을 들여서 쉼터를 정비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업개요 41페이지 쉼터 하면 알루미늄이나 세시로 한 것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委員長 金福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朴鍾植委員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릴 바와 같이 인왕산 사적근린공원 뒷쪽에서 북악팔각정에 이르는 길 주변의 쉼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 30억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쉼터는 저희 경관으로 단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1경관이 보통 2m입니다. 2m인데 일반적인 쉼터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1경관에 19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드라이브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드라이브할 때 꼭 그 코스는 빼놓지 않고 아마 드라이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 우리도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의견조회가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시비 지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쪽지역에 설치되는 쉼터는 일반적인 쉼터보다 질이 좋은 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비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위험수목이 연간 몇주나 나오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300주에서 500주 정도가 1년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들이 제거한 실적이 310주를 제거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때 도목된 수목량이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400주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300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오랫동안 기억 남는 것은 우리 지역이 화동 관내에 딱 이화장에 나무 하나 넘어져서 제거한 것 몇년 동안에 걸쳐 그것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300 몇십주씩이나 나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로수뿐만 아니라 임야 내에 있는 위험수목도 발생이 되면 제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관내에 임야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간 400주 정도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대학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불법광고물을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강력 법안이 없어요? 광고물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업소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붙이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도 같은데 붙이게 가만히 놔두고 취로사업 하는 분들 시켜서 막 떼더라고 애 쓰시는데 그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만이라도 특별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사전에 못 붙이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1, 2년도 아니고 일상 생활로 그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위험광고물에 대해서 조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뚜렷한 조치사항이 없고 가장 위반사항이 큰 경우 기껏해야 과태료 50만원 부과하는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5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를 내고 광고를 하는 것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돼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법

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고 500만원정도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고발도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것이 입안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광고물 관리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朴鍾植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10명×10일×8개월 했는데 금년에는 42명×16일×12달로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차액이 생기는데 작년에는 10명으로 했는데 왜 올해는 42명으로 했는지 지난해는 10일이었는데 16일씩 계산을 했는지 또 8개월 했던 것을 왜 이렇게 12개월 해서 많은 급량비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朴鍾植委員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12명에 대해서 10일 6개월을 편성한 것은 아까 제가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직원에 대한 급량비는 작년까지 기획예산과에 통합 편성되어 있었고 다만 과에서 특수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만 과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은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을 위해서 밖에 현장근무하거나 조기 근무하거나 무허가철거 용역직원에 대해서만 주택과에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일반직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그것이 금년에는 각 과에 분산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주택과 인원수 만큼 편성되게 되어 있고 그 액수도 일할 수 있는 양만큼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하나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여쭙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녹지관리다 이러한 녹지관리 이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1,373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

데 작년 예산안에는 16억 5,6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작년도 예산안하고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고 기록해놓은 것하고 다른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16억 5,67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써놓은 것은 다르거든. 16억 1,379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건 맞는데 여러 군데가 다 틀리더라구.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작년도 당초 최초의 예산(안)에 편성했던 당초 예산(안)이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朴鍾植委員** 전년도 예산(안) 하고 2000년도 예산 책자에 나온 거 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 예산의 대비라고 해서 해놓은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다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서 일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예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6억 5,000만원으로 있다가 4,000만원 삭감되고 최종 예산이 확정된 게 16억 1,373만 9,000원으로

○**朴鍾植委員** 그러니까 조정된 금액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憲九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어제 마지막으 로 질의하는 바람에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데 오늘은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방금 전에 朴鍾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수목 제거는 말이죠 사실 우리 동네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왕산

에 아카시아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 나무는 키는 큰데 뿌리가 옆으로 많이 퍼져 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져요. 금년에 태풍이 없어서 별로였지만 작년엔 엄청나게 많은 위험 수목을 제거했는데 금년엔 옥인 어린이집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아카시아나무를 베어 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한 주는 베었는데 한 주는 베어있지를 않고 또 노인 정으로 올라가는 데에 아카시아나무 다섯주가 위험수목으로 지목이 돼서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잘라달라. 왜 그러나 하면 저녁에 주차를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차가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석죽사 옆에도 위험수목이 있어서 그걸 베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제거를 못 했는데 위험수목은 우리 동네에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400페이지에 보면 7,000만원의 연구개발비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여기는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李憲九委員** 소관은 토목과 소관인 거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이고 그럼 지나갑시다. 401페이지 세항 405를 보면 자산취득비로다가 관측용 컴퓨터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항목까지가 토목과 소관입니다.

○**李憲九委員** 그럼 또 넘어가서 407쪽 401항을 보면 말이죠, 이게 헛갈리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거기 보면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 3억 8,500만원 보다 4,5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적게 책정이 됐겠냐? 보통 상식적으로는 더 많이 책정돼야 될텐데. 그럼 여기 불용액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저희들이 공원관리 분야하고 녹지관리 분야하고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두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관리

분야는 주로 근린공원 위주로 이렇게 시설비를 편성해놓았고 녹지관리 분야에는 새로운 신규 공원 조성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녹지관리 분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쪽 공원 분야에는 시설비가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녹지관리 분야는 작년에 비해서 1억 4,300만원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약 1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李憲九委員** 근린공원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99년 예산에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해서 연근린공원 등 근린공원유지보수비로 4,6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배정받았고 그 다음에 와룡공원 급수시설비 3,000만원도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유지시설비 비목으로 총 집행된 게 작년에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유지보수비란 게 이게 참 애매하기가 짝이 없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년에 어디어디에 썼는지 서면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무악동하고 인왕수목원에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배정이 됐네요. 그거 하나 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지하수 개발하는 데 3,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원래 하기로는 3,000만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李憲九委員** 3,000만원이면 무악동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해왔던 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개략적으로 설계한 바에 의하면 무악동도 시설이 노후되고 방치가 돼서 사실 굴착하는 비용 외에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

다. 그래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악동이나 옥인동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李憲九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丁炳煥委員이 지난 추경 때 이 지하수 개발에 대한 예산배정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완벽한 지하수가 개발이 되도록, 인양수목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꼭 참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그 다음 410쪽 세향 206 녹지분야 꽃묘 구입인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든가 또 이것을 우리 종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나 전 시민이 보는데 이걸 국비나 시비로 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기본적으로 가로에 화분을 놓고 꽃묘를 심고 하는 그 의지는 저희 구청의 의지이지 시청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꽃묘를 놓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구나 시에서 왜 놓지 않았느냐? 반드시 나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 구의 의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구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어느 지역을 가도 가로화분, 대로변, 녹지대에 꽃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바와 같이 각 구에서 통상 2억 정도에서 2억 5,000까지 배정을 한 구도 있습니다. 조금 큰 구는. 그런데 저희 구는 통상 1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45,000은 별도로 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타구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꽃묘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이 꽃묘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연말까지 꽃묘를 식재 안 한다면 몰라도 일단 하게 되면 연말까지 식재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할 수가 없는 이유가 중단하게 되면 그 화분하고 녹지대 관리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해량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李憲九委員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잘해놓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 공원에 대해서도 꽃묘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통상적으로 1억원씩 여기 예산 외에 보통 45,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저희 구는 받고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다는 아니지만 경복궁 앞에 거기 앉은자리에다 꽃묘 심고 그랬잖아요? 여름에 보면 노인들이 물을 가져와서 뿌려주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바뀌더라구요. 바뀔 수 있지요. 꽃이 시들어가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해요. 쓸데없는 데 돈을 들인다구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경복궁 앞의 교통안전지대 녹지대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상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 그 다음 지나치게 자주 교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반발을 사는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난 그것도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런 거까지 우리가 돈을 대야 하느냐 그랬는데 그럼 시에서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너무 많이 예산이 배정된 거 아니냐?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저희 꽃밭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대로변에요. 그 다음에 가로화분

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상 관리하는 게 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 저희들이 식재를 해보니까 한번 식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약 7만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간 통상 6회 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번,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두 번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도 두 번 해야 하고 그 다음 11~12월 초까지 이렇게 해서 6회 식재가 되다 보니까 약 43~45만본 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 꽃이 평당 3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로 어떻게 달리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얘기 같은데 경북궁역에서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무궁화꽃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경북궁에서 청운동사무소로 가면서 그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사로입니다.

○李憲九委員 그럼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서쪽입니다.

○李憲九委員 그럼 거기 나무를 안 심고 있는 곳에다 심겠다? 거기에다 그걸 어떻게 심으실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 식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목이 아주 좋은 수목이면 식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용 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李憲九委員 바로 그겁니다. 거기가 옛날 개울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좁아요. 나무를 못 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기 때 독일 프랑크프르트를 가보니까 거기에 이동식 가로수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동네에 도입을 해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시행을 안 했는데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꽃이긴 하지만 식재를 하게 되면 진딧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구청장님께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플래카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계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직부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적어도 계시대 하나 정도 할 장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걸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불법 플래카드를 없애야 합니다. 정말 너무 지지분합니다. 두번째 아름다운 종로를 불법광고물의 홍수로 인해서 아름답게 보여질 거예요. 번쩍번쩍 하고. 우선 도색도 말입니다 간색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원색으로 하지말고 간색으로 하자. 그 다음 건물 하나에 광고 하나만 걸치게 이렇게 계도를 하자. 마지막으로 관계관님들 중국이나 외국에 가보셨겠지만 가까운 중국 얘기합니다. 중국은 가로등은 시원치 않지만 건물에 대한 조명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잘 비춰져 가지고 건물이 번듯하게 살아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 필요없이 길이 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종로만이라도 이것을 앞으로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이 광고물만 없애더라도 우리 종로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 내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어제 조금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서울시에서 누상동 산1~3번지 건물 두동을 철거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준 지가 지금 3년째 됐어요. 저는 이 무허가 집 두개를 철거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가부간에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고 더군다나 거기 한 집은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난 이게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우리 관계관들이 알고 있는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이 대지는 공원입니다. 자연공원에 집 하나는 아주 무허가고 하나는 어떻게 된 셈인지 등기부상에 등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완전히 양성화시켜

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시켜서 서울시에서 기왕 내려온 거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보상을 좀 잘 해서 철거시키든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청와빌라거든요. 이 옆으로 우리 자연공원 내 배드민턴장하고 운동, 놀이시설도 있고 팔각정도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2기 때 구의원께서 거기다가 야간 조명시설까지 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왔는데 사람들이 안가요. 그 넓은 게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공영주차장 만들어 왔는데도 100% 주차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 하지만 언젠가 이것이 용도가 없으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 효자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가 마땅치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해주시든지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고 철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 해주신 그 두 건물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李憲九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弼根委員!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심의시에 본 위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시설물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지적하셨는데 금년 예산은 주요사업계획서에 河徹昇局長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07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구형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용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모험심을 심어줄 수 있는 안전한 새로운 현대시설물을 설치코자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로구 명륜1가 23-9 우리 혜화동 관내에 현대화된 어린이공

원을 만들려고 한 데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형시설물과 현대시설물을 비교하기 위하여 어젯밤에 창신동 어린이공원을 가봤습니다만 구형시설물과 현대시설물이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1억 7,000만원이 들었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구형시설물하고 신형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만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반 조성공사 해가지고 2,700이 되어 있는데 지반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키 큰 나무 40주 해가지고 1,400, 키 큰 나무가 20주 이상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2,000주를 심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500주도 못 심어요. 조합놀이대 설치하는 데 5,6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吳弼根委員 가보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먼저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자도 너무 낡고 그래서

○吳弼根委員 의자가 낡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쓰레기, 담배꽂초, 술병 등 한번 가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담배나 피고.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깨끗이 칠하고 보수하세요. 왜 아까운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다가 우리 관내 시설물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건 의원으로서 이게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가서 보니까 공원

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가서 보니까 공원 등주라고 해가지고 등주교체만 4개 해주시고 시설물을 깨끗이 도색만 해주세요. 그리고 의자도 지금 여기 보니까 설치하는데 41만 6,000원 해서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서 보면 페인트칠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창신 어린이공원에 가보니까 난간의 그 나무 그거만 쳐주세요. 어린이들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구비 1억을 아끼고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5,0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吳弼根委員님의 지적을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 사업 물량이 평균적으로 50%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주민들이 반드시 인근에 저쪽 성북구나 인근 다른 구를 가보고 거기와의 비교를 해서 거기는 이런 놀이대가 새로 놓여져 있는데 왜 여기는 이런 놀이대를 그대로 방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을 적게 잡았다가 부득이하게 물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조건부입니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하면 한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2정도고 많으면 60%까지도 가능합니다. 반 정도가 통상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하면 2,50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吳弼根委員** 그리고 綠地課長님! 당장에 이거 끝나고 나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청소를 해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알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리고 근린공원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마로니에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로는 젊은이의 광장이고 젊음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대학 선배 목사께서 노숙자들을 위해 5시에 무료급식을 합니다. 제가 거기 밥을 배식 해주려고 자주 갑니다. 가다 보니까 대학로에 화장실 있지요? 작년엔 마로니에공원 투자비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던데 화장실 보수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네, 했습니다.

○**吳弼根委員** 한번 가보셨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吳弼根委員** 앞에 가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죠.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까 하구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벨브를 다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7~8개 소변기 중 4개가 물이 안 나와요. 그거 누르면 이상한 소리가 나구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현대화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5,000만원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명세서 한번 내보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 서면으로 정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이번 기회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투입이 되는데 한번 개보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공원이 지금 40개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용인부 그 다음에 일용직 인부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그 다음에 마로니에, 탑골공원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지로 비근한 예를 들자면 중요공원 같은 경우에도 자동감지시설로 용변기를 해놨더니 이것이 버려대지 못합니다. 다시 수동으로 교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탑골, 마로니에

가보면 파손되어 있고 도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실
제로는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아예 개수선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화장실 용품비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다소 책
정해왔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
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
다마는 하루가 다르게 시설물들이 훼손이 되고 있
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吳弼根委員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411쪽에
유실수 단지 수목이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로
구 구기동 176 의 5필지 자두나무 430주가 있는
데 수목 굴치를 하는데 주당 15,000원입니다. 맞
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吳弼根委員 주당 15,000원입니다. 한 그루를
파내는 데 15,000원이예요. 또 수목을 이식하는데
2만원이예요. 지금 공공근로자 하루 인건비가 얼
마입니까? 하루에 몇 그루나 팔 수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이것 15,000원하고 23,000
원은 굴치하고 식재비만 아니고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파려고 이렇게 한 그루 파는데 15,000
원씩 들고 심는데 2만원씩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합해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생명의 나무 천만주 심기사
업 수목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국민식수용 수목구입에 500만원이 포
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어디에?

○吳弼根委員 구기동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유실수가 780주입니다.

○吳弼根委員 그렇다면 생명의 나무 천준가 천만
주 심을 때 그걸 돈 들이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
하면 안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수
목 녹지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천만 그루 심기사업

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목보다는 어린수
목을 식재를 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
이고 여기에 3천주 예상해놓은 것은 각 동사무소
에 요청을 받아서 동의 공지라든가 우선 녹지대에
식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념식수로 공원에 추가
로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
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河徹昇局
長님은 너무나도 업무에 깊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들 역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존 무허가가 1,783동이 현재 우리 구
에 기록되어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丁炳煥委員 주택이행강제금이 1억 6,050만원,
건축이행강제금이 6,591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수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
니면 무허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장기적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존 기본
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
서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여건을 고려해서 소
유주들이 기거하고 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업행위라든가 이러
한 용도로는 다소 제약을 두고 있는 이러한 절차
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는 이 건물이 용도가
다 돼서 헐리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는
현재는 이것을 달리 뚜렷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
은 아닙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구에서는 스스로 파손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기존 무허가는 일단 정부
에서 정책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관리하고 있
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기존건물에
대해서 독자적인 그러한 관리나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뭐냐 건축법을 꼭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본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준공을 해준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국·과장님들 사항은 아닙니까는 전일부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나의 직무태만이랄까 아니면 바꾸시기식이랄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현재도 이러한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존 무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당초에 '82년 이전에 건축됐던 건물 무허가로 또는 위법으로 건축됐던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로 건축물로 지정해서 임시적으로 그분들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무허가건물 관리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80년대, '70년대 이 때에는 행정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비가 덜 되어 있고 그때 한참 개발붐이 일면서 서울로 몰릴듯이 주민들이 밀려든 시절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그때는 생존이나 이러한 문제지 합법이나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나 죽음이나를 따질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아파트가 낙산을 헐고 청운아파트가 들어선 게 그래서 정책적으로 들어선 게 아닙니까? 이러한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되 최근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 사례가 이런 근원적인 무허가건물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다만 위법 건물 사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부에서 지난번에 27.5㎡이하인가는 등기 해준 적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임시조치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 12월 16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85.5㎡미만의 그것도 주택이어야 됩니다. 용도가 85.5㎡

미만의 주택이어야 되고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절반이 주택 용도로 쓰는 이러한 건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판내에 대상이 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화로 돌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4건 정도가 양성화된 바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앞으로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또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과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고생을 겪고 있는 주민들 이 사이에서 고너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청장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고민은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양성화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법령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합리적인 고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를 2,700만원이라고 편성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10동을 계상했는데 10동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건축물을 꼭 예정을 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용역비로 2,700만원 계상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 1년에 무허가 단속 업무를 하다보면 대략 저희 자체 직원들이 철거하는 게 통상적으로 한 80여 건, 90여 건 정도 1년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대개가 작은 건축물들입니다. 저희들 장비라는 것이 해머라든가 이러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견고한 안전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동을 여기에 예정을 시범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조금 크고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대집행계고를 보내고 있는 게 연간 11건에서 통상 12건, 10건 이러한 정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10동을 추산을 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구청 인력으로는 안되고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장비가 없어서 용역을 줍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장비나 기술력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기능직 직원들하고 일반직 직원들이 해머 들고 다니면서 철거하는데 현실적으로 2층에 올라가거나 철근콘크리트 같은 것은 도저히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전문장비를 갖춘 전문철거업체에 용역을 줘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아까 407쪽을 보시면 우리 **李憲九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약수터를 개발해준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금년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서 제가 그것을 싸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질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수차에 걸쳐서 해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는 금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금년에 무악동에 대해서는 5차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던 그 당시까지 4차례까지는 수질검사가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질검사에서 이 무악동 지하수가 역시 다소 질산성 과다라는 판정이 내려 가지고 이것은 제의를 다시 한 번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물이 수량이 줄어들었는지 저희들이 4차례 수질검사는 적합판정이 떨어졌거든요.

○**丁炳煥委員**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탱크가 있죠? 앞으로 기술적으로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저도 지하수 개발하는 데는 탱크를 지상으로 올린 데는 없습니다. 저도 지하수를 개

발했는데 저는 지상으로 올린 것은 한번도 안했는데 탱크를 지하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지상에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 올릴 적에 저도 깊은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면 된다길래 보수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신규로 하면 돈이 4,000만원 이상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직원들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것도 지상으로 하지 말고 지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하게 되면 어차피 조경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지하로 넣는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무엇을 한건 하더라도 완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료가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되었는데 명년도 2001년도에는 재료가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66%가 증가되었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다소 9,3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사유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꽃구입비가 당초예산이 5,67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추경으로 저희들이 8,500만원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기타 부분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 간에 구청 살림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라도 개인적인 돈으로 쓴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4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어요? 152%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주택과에 당초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직원들 급량비를 기획예산과에 통합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는 과로 분산해서 이렇게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순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이 주택과에 편성된 그런 관계로 주택과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丁炳煥委員**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을 각 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구청에서도 아주 살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주고 살림을 내 개인 돈으로 쓴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岡**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會議中止)

(13時2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 前 副議長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례회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져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면서 일부 감사 겸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金福岡**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吳錦南委員** 우리 종로구내에 풍치지구를 재조정해서 시에 건의해서 어떤 좋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지 않나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吳錦南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여름에 풍치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 그러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개월간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일일이 저희 관내 풍치지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 규모도 일일이 파악을 하고 저희 관내에 풍치지구 모든 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직접 현황을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다면 풍치지구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쪽 돌아보니까 기존 녹지대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이미 주택들이 들어서서 사실 풍치지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는 이런 지역도 있고 또 풍치지구와 죽녹지와 연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존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이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건의할 계획이고 그 다음의 해제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고도라든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폐율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은 별도의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좋은 성과가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지구 지금 사직동에 262번지 일대에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

에 보면 사직동 280-1번지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달리 관심을 갖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환경개선지구내기 때문에 금년 7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지하2층에 지상5층이 이렇게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과연 거기에 그러한 정도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이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주택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직동 280-1번지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하2층에 지상5층 건물로 지금 허가가 나가서 신축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통상 16개 지구가 있고 각 16개 지구별로 개략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던 시점이 보통 '90년, '91년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그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송인동 지역의 아파트 합필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몇층까지 지어라, 몇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언급은 없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로 4층이하로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중요하지만 건축법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조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합당하다면 법률 범위 내에서까지 짓도록 해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저

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일단은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만약에 이 건물이 5층까지 허가가 됐다면 그러한 주민들 요구 때문에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겠으나 생각이 들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면 주택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지하와 지하층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반지하층과 지하와 구분을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층하고 반지하라고 하는 개념은 건축법상에 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용어인데 지하와 지상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하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묻히면 이것은 지하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방 평균으로 해서 건축물의 네 측면을 평균을 내서 2분의 1이 묻히면 지하 그 다음 2분의 1 이상이 묻히지 않으면 지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다음 지하2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집은 준공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앞에서 보면 그냥 단층인데 주차장이고 그 집을 약간 돌아서 올라가게 되면 지하2층이 단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하2층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이 묻혀야 되는데 그 집으로 봐서는 현재 2분의 1 정도도 지하로 안 묻힙니다. 이런 것을 과연 준공검사 때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住宅課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住宅課長 姜仁豪** 지금 吳錦南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직동 280-1, 280-3호 두개 필지에 대해서 현재 건축허가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약 1,200㎡의 15세대 주택입니다.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吳錦南委員** 5층으로 알고 있는데

○**住宅課長 姜仁豪** 대부분 지금 사직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건축허가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5층 건물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주변 주민들도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 자체의 현황이 주변 도로하고 앞면하고 뒷면하고의 고저 차가 5m정도 되고 있습니다. 5m 차이가 돼서 저희 건축허가를 낼 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건축물에는 사실상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하2층 부분은 건축주하고 유도하기를 전 면적을 지하2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주변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니까 15세대 지어서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건축물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하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 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줄 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빈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준공승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사실 그 도로는 20여 년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가. 20여 년 전에 도로구획선이 딱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으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상으로 침범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은 편에 있는 박 모 선생께서 자기 땅으로 침범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법적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택과장님한테 몇 차례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재측량을 해

서 민원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재측량을 하셨습니까?

○**住宅課長 姜仁豪** 주민들 입회 하에 측량을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로폭이 4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4m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재측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280-1호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제가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적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측량을 할 때 주변 주민들과 관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측량을 해서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그 도로가 4m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안 나온 부분은 저희들도 맨 처음에 제가 주택과장 오기 전에는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어서 측량을 하면서 배웠습니다만 거기 고저 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기 때문에 옹벽을 치지 않습니까? 옹벽의 맨 앞부분이 아니고 옹벽 넓이만큼이 4m 도로폭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그 옹벽폭 만큼이 줄어든 거죠. 도로상으로 딱 재면 4m가 안 되는 것은 옹벽이 지금 35cm' 뵈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공사 하는 분이 옹벽을 두 번 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설계를 보고 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택을 지으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반대편으로 더 나가야한다 그래서 옹벽을 또 다시 쳤습니다. 이중으로 두번씩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 가면서 두번씩 옹벽을 치겠느냐? 지금 현재 이 집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한 7~8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전 MBC 방송에서 9시 40분 뉴스인가에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얻어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현재 있는 지주가 K모씨하고 J모씨 여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동기부를 때보니까. 이 분으로 해서 같은 K씨로 해서 사례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주민들의 민

원을 많이 야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공검사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姜仁豪 제가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장을 몇 번 나가 보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사직동 141-13번지에 5평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등재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 사람은 세금이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원하는 건 다 냈습니다. 부당이득금도 내고.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등재가 되었으면 하는, 말하자면 무허가등재겠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뭐니까? 본인이 몇 차례 구청에 와서 말씀드렸다는데.

○住宅課長 姜仁豪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학로의 중앙선 분리대가 지금 많이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공사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가면 소관 과장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내일 회의 때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吳錦南委員 분리대를 만듭니까? 화단을 만듭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종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시는 분들로 위원님을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 관내에 소재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계십니

다. 대학의 교수님들을 상당수 모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첫째가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는 걸로 두가지 조건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여건이 안되면 타 대학에 계신 분이나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 거주하는 분들만 위원님으로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吳錦南委員 그거는 우리 종로구만 계시는 분들만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 되시는 분들이 강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한 70~8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실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로구도 강남에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위원으로 하지 마시고 강북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위촉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저희 구에는 안 계시더라도 저희 도시계획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강북에 소재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시고 또 저희 구의 도시계획 위원님들은 저희 구의 실정도 상당히 이해를 해주시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제가 조금 전에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특검제라고 그래서 서로 교환해서 준공검사를 필해도 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가 준공검사 신청이 되면 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특별검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검사한 걸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2000㎡이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네요?

○建築課長 李漢求 네.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5평이든 10평이든 협회에서

○建築課長 李漢求 그 신고대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신고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허가대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면 오히려 건축에 부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미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허가 건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2000㎡ 미만입니다. 연면적 2000㎡면 그렇게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면 약 600평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 중에서 태반이 특검제 대상입니다. 지금 건축 공무원 중에서 부정을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이 특검제인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대로 건축이 됐는지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내줬습니다만 방금 건축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건축협회에 바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협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무작위로 한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럼 그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분석을 하고 그 분이 준공 내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준공을 내주도록 되어 있고 이걸 준공 내주기 부적합하다, 위법이 있다 그러면 준공을 못 내주는 입장이어서 특검제가 갖는 폐단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검제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매 분기마다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점검하고 우리 구는 또 다른 구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법사항을 조기에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吳錦南委員 그 도입이 금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8월부터입니다.

○吳錦南委員 다른 구는 상당히 일찍 한 거 같은데

○建築課長 李漢求 똑같이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모 파출소 소장

이 그 주차장에 스티커 붙이고 하는 이런 걸 거의 다 전화 상으로 고발을 일부 한 것도 있고 고발하겠다고도 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본인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이 스티커가 거의 없습니다. 꼭 돈을 들여서 뭘 한다가 보다는 관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게 되면 조그마한 스티커라든지 조금 큰 거든지 무단광고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내 각 파출소나 경찰서와 상의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경찰서나 파출소의 협조를 구해서 남발되고 있는 불법스티커를 떼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종로와 대학로 일대, 관철동 일대에는 워낙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불법벽보제거기를 2,28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활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관내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부착을 줄이도록 하고 일단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신속히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직공원 내 제1호 화장실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소변기가요. 타이머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줘요. 그거 지하수라 그렇습니까? 수돗물을 일부러 계속 틀어놓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수돗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계속 수돗물이 흘러요. 여기서 거의 4~5m 되는 데 계속 남자 소변기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꼭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현사시나무 이것도 제거를 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해도 제거를 안 해줘요. 그러면 현사시나무 제거하는 거나 수목제거를 할 때 지금 하청을 쥘서 하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용역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현사시나무는 계속 앞으로 제거를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위험수목 정비 차원에서 벨지 안 벨지, 또 일부러 제거하면 민원이 발생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사시만은 가급적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4페이지 상단 월드컵 대비라고 해서 꽃묘구입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꽃묘구입비로 아까 도심 내 가로변 그 다음 녹지대, 교통성 등에 꽃묘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별도 1억 4,91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고 이 예산은 저희 관내 공원에 꽃묘를 식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관내 마로니에공원, 삼청, 낙산, 와룡 등등 저희 관내 공원이 약 40여 개소가 됩니다.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식재할 꽃묘구입비입니다.

○吳錦南委員 작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吳錦南委員 이렇게 많이 안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많은데 일부 공원에만 꽃묘를 식재하기가 어렵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

지고 공원관리인부임으로 해서 1,999만 2,000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작년에는 공원관리인부임은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급원에 별도로 저희들이 1,92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공원이 4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 기능직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다행스럽게 공공근로가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하고 상용직을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공원관리에만 다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임야, 가로수, 가로변, 녹지대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님도 자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했다 이렇게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441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시유공원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시유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시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맞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구라고 써놓고 '0' 이건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국비는 0원, 시비가

○吳錦南委員 이렇게 해놓으면 구비로 알잖아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건 표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붙여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조금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국의 局長님과 課長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예산 심의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답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공공근로하고 관련지어서 우선 녹지과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하고 '98년도, 2000년도에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인왕수목원인가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사업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인왕수목원을 조성할 때 어느 정도의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사업 효과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安載弘委員 혹시 그럼 공공근로가 인왕수목원에 투입된 인원수나 지출된 급여나 이런 거 알 수 없나요? 먼저 제가 듣기로는 인왕수목원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종로구가 공공근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사례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수목원에 대해서는 주로 아카시아나무가 도급된 게 작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든다든지 산책로를 관할 의원님은 잘 아시지만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산출이 어려운 정도의 물

량으로 사직공원 뒷편으로 해서 수목원까지 가보시면 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자재는 제가 보기에는 격쇠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고 나무는 현지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이용해서 계단식 산책로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현재 물량표시를 하기는 어렵구요 2000년도 저희가 2만명 정도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만 동원된 게 아닙니다. 각 공원의 청소나 수목원 산물베기 등 이런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공공근로가 없으면 공원관리 하는 데는 거의 손달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50명 있는데 상용인부라고 그러는데 각 공원에 3~5명 있는데 청소하기가 사실 바쁩니다. 지금 외곽에 인왕산이라든지 평창동쪽은 거의 공공근로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특별히 넣은 것은 지금 상용도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휴일날은 근무를 못 시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근로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일을 잘 안 시킵니다. 일요일날은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는 50% 이상 공공근로로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말씀을 들으니 참 잘하셨는데 뭘 잘하셨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2000년만 해도 연 2만명이 투입돼서 각종 수목원을 관리하거나 각종 공원관리하는 데 참 잘 쓰신 거 같아요. 사실 실적도 많이 거양하시고 아마 그런 것도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97년도에 IMF 발생이후 '98'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예산이 공공근로로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구만 해도 직원들 급여 중에서 또는 급여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일부분, 또는 국민의 세금 중에서 일부분 이런 것들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편성됐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같이 공공근로를 이용한 수목원 관리라

든가 녹지관리, 공원의 관리 기타 부수적인 일들을 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녹지과에서 각종 편성하고 있는 북악스카이웨이 노후철크스 정비비라든가 유실수단지 내 아까 吳弼根委員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수목이식사업비 그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작업 이거, 그 다음 일시사업인부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 그 다음 도시공원관리비 중에서 일시사업인부임 이거를 공공근로로 대체한다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예산이 제가 알기에 19억 3,400만원인가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가 7억 9,000만원, 시비가 2억 7,700만원, 구비가 8억 6,6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종로구가 즉 관련된 과에 공원녹지과라든가 또는 주택과라든가 또는 기타 관련된 과가 총 힘을 합쳐야 되겠죠. 공공근로 관련부서하고, 그 부서들과 힘을 합해서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녹지과 지금 녹지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업인부임을 절약한다면 아마 전국적인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을 사업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실현을 해보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야말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적어도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협조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행정개혁 지방행정개혁 사례 무슨 전산인가 폐어에서 부산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보건소인가 뭔가를 지었대요. 그 사례를 보니까 아주 그것이 효율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과 관련지어서 공공근로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용한다면 물론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작업능력도라든가 또는 숙련도라든가 이러한 것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2만명이 투입돼서 그 정도의 사업효과를 거뒀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추가로 넣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그런 때에 공백이 생깁니다. 실지로 상용인부가 노조가 생겨서 근무가 안되고 공공근로도 일요일은 일을 안 합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도 지난번에 도입할 적에도 공공근로를 모아놓고 야간에 일할 사람을 찾아봐라. 반이라도 나오면 청소는 아침 일찍 하는 것을 원합니다. 마로니에, 탑골이고 종묘광장 일찍 청소를 하고 밤중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할 사람을 찾아봐라 낮에는 쉬고 그러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출할래도 안되고 차라리 그 돈을 과에다 배정해서 너희들이 맘대로 일용을 사서 쓰라 하면 밤중에 근무할 사람을 사역할 수도 있으면 아주 쓰기는 일용인부가 없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공공근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옛날같으면 취로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업능력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 사실상 보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과로 내려온다면 아마 일용인부들을 저희가 쓴다면 아마 효과는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현재 상태는 조금

○安載弘委員 그 정도의 과장님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나 돈을 주는 사람이나 일을 일담게 했다면 돈을 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하고 관련된 사업비는 국가에서 책정된 제한된 금액이겠지만 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간다면 떳떳할 거란 거죠. 지금 공공근로의 병폐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나타난 것이 지금 차츰차츰 시정되고 있고 최초로 '98년도나 '99년도나 2000년도에 공공근로와 관련지어서는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실시한 것은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실업자라든가 또는 그야말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제는 3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을 지양하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잘못된 것을 2001년에도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쓰자는 거죠. 물론 공공근로를 쓰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일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지구력이라든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2만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어쨌든 인왕수목원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응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종로구에 모든 집행부 공공근로와 관련된 인력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정말 국·과장님들이 그 예산은 어차피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한번쯤 사업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彼岸**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安載弘委員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安載弘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사업에 활용해서 인왕산 수목원길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송인공원의 산책로 정비, 와룡공원의 산책로 정비 이렇게 눈에 띄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安載弘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목적이 생산성보다는 실업구제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도 그래도 저희 종로의 공원녹지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은 타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산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덕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예산절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비록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편성됐어야 될 사업비들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졌다

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인원 2만명 평균 하루에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해서 기존의 수목원 관리라든가 녹지대 관리에 약 절반 정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절반 정도 투입을 하는데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 한 40여개 소 되는데 그 중에서 탐골, 종묘, 마로니에 등 도심 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찾는 시민들이 많은 이러한 공원은 아주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일로 최고로 애로를 겪는 게 아침 시간대입니다. 사실 공원은 아침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는 9시 넘어서 출근을 하거든요. 사실 청소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청소가 잘돼야 되는데 이때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공공근로는 조금 탄력적인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산책로 정비라든가 어떤 시설사업을 하는데 꾸준한 사업을 할 때 투입을 하거나 공원관리를 하더라도 주간 청소인력이나 녹지대 산림관리원으로 좀 활용을 하고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하루에 8명 정도 해서 75일 쓰는 것으로 공원관리 인력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인력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다음에 아침 새벽시간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일시사용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아주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 일찍 청소하기 곤란하고 토요일 오후에 청소하기 곤란할 때는 머리를 쓰면 되죠. 어떻게 하느냐 당시는 공공근로지만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만 하고 들어가라. 그래도 쳐주겠다. 이렇게 응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련된 부서에 과장님들이 참 샤프하시고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운영의 어떤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2001년도에 종로구는 공

공근로인력을 말이지요, 좀더 효율적이고 사업을 거 양할 수 있게 한번 시도해보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좀전에 알아왔고 그러한 병폐들이 있어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개선해보자 저는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천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근로와 녹지과 예산을 한번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李憲九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사로의 무궁화 150주 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李憲九委員님 말씀드렸듯이 무궁화에 대한 것보다는 성장률이 둔한 그러한 식재가 화단식재 쉽게 말하면 옮길 수 있는 이식식재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필운동에서 신고동간 일부분은 지금 빗꽃나무를 식재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직동사무소쪽에서 환경연합 있는 데까지는 아무런 나무의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도 추사로에 하면서 같이 좀 성장률이 저 성장이 되는 화분식 가로수 나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것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411페이지 좀 봐주시죠.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대해서 녹지대 유지보수사업비라든가

주택가의 임야, 도로변 위험수목제거, 자매결연도시 기념공원 조성 2억 5,000만원,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변 노후철크스 정비,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가로보식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지역이며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예산이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吳錦南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녹지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대 유지보수사업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가 종묘 시민광장으로 일단 공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녹지대로 관리하고 있고 해화동 로터리라든가 동대문구역, 청계천 분리대, 종각주변, 종로1가, 세검정지대 등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입니다. 여기 녹지대의 노후철크스 그 다음에 의자, 파고라 설치, 수목식재 등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후철크스가 약 한 70경관 정도는 금년에 교체를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크스가 일반 철크스인 경우에 1경관이 2m입니다. 19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교체를 하는데 약 1,33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의자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를 할 곳이 약 26곳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파고라를 1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직접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청계천로변 주변에 파고라를 설치할 지역이 있으니까 파고라를 1조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조 설치하는데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의 녹지대 같은 경우에 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대 훼손 수목을 보식하는데 관목과 교목 등으로 해서 약 1,750만원 그리고 큰나무가 2,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은 나무는 2,400

만원 관목류가, 그 다음에 교목류가 1,75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했고 기타 시설물 조금 조금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조금 훼손됐다든지 이러한 걸로 약 23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돼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녹지대 소요예산이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건 가로변이니까 알고 있고 다음 자매결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자매결연도시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현대아파트 뒷쪽에 기존에 가이주단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완료하고 나대지로 시유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명칭은 자매결연도시 기념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본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에는 나대지로 보기 좋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가볍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하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석축이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문제기 때문에 석축보수가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축 보수하는데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첨스가 일단 석축이 보수되면서 동시에 첨스가 쳐져야 됩니다. 첨스가 30경관 5,300만원 큰 돈이 들어갈 거로 보이고 총면적이 3,700㎡된다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680㎡는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한 3,500, 그 다음에 설계비 1,50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대략적인 설계를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공원의 어떤 기본적인 모형만 갖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매결연도시에서 와가지고 나무를 심겠다 하면 자기들 비용으로 식수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조금 만들어놓겠습니다

다.

○吳錦南委員 다음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변 노후 첨스정비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변 노후첨스 정비에 대해서는 인왕삼거리 검문소에서 북악팔각정 사이에 50경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50경관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30억 지원되는 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수 전정에 소요되는 건데 500주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작년 예산은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올해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집 근처로 가로수 나무가 편입되어 있는 것을 신속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최소한도로 전지를 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계셨고 주민들도 실제적으로 가로수 전지에 대한 요구가 많습시다마는 서울시 자체가 가로수에 대한 전지 특히 강전지는 강력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책도 참고해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전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보식 및 생육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라든가 특히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육이 불량한 게 많습니다. 뿌리가 튀어나온 것도 있고 기로수가 지금 약 6,700주정도 됩니다. 6,700주정도 되다보니까 가로수 생육이 불량하거나 토양이 좋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로수 보호판이 훼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흙이 흘러내리고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가로수보호판을 교체할까 합니다. 가로수보호판이 조당 25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물량 파악을 했습니다. 한 개 192조 정도는 손을 봐야 할 걸로 보고 여기에 4,6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수 중에서 외과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게 83주 그 다음에 가로수 기존에 폐목이 돼서 잘라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굴기를 포함해서 새로이 보식을 할 경우 25주에 1,75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무에 주는 영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가 225주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450만원 그 다음에 뿌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사되거나 민원 요구 들어온 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약 20주 그 다음에 토양개량이 m²당 보통 10만원 정도 하는데 일부 토양개량을 해줘야 될 이런 가로수도 면적이 30m²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가로수보호판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가로수를 심어놓은 지가 보통 20년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판은 옛날 유치원 판입니다. 판을 교체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과거 오래전에 만들어진 보호판이라서 미판도 좋지 않고 조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나무 성장한 나무 크기에 맞게 교체를 해나가는데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훼손이 심하거나 교체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교체를 매년 해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100%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吳錦南委員 그렇죠. 100%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에서 황학정 활터로 해서 인왕배드민턴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인왕배드민턴장이 있고 바로 옆에 운동시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을 2

개 좀 달아달라고 몇차례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제가 알기로는 사직공원 내에서 해서 저번에 등을 달아줬거든요. 위에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吳錦南委員 공원 내에 말고 황학정을 통해서 중간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배드민턴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출이 늦게 뜨는 날은 등이 꼭 필요하다고 노인분들이 얘기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것은 즉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직공원에서 인왕스카이웨이로 올라가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올라가는데 세검정 넘어가는 삼거리 있겠습니까? 청운동 쪽에서 올라가는 지하로 말고 위로 해서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거든요. 군사보호구역 도로죠? 본 위원 생각에 페타이어로 해서 보도블록을 만든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행자의 관절보호도 위하고 아마 걸어다니는데 조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도로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직공원에서 세검정 오는 삼거리 인왕스카이웨이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까지 다리 있는 데까지 조깅코스를 만들면 어떤가, 페타이어로 보도블록을 해서 그대신 군사도로나 군인들은 차량이 다녀야 되겠죠. 일반차량은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해도 천상 북악스카이웨이 삼거리에서 세검정 삼거리에서 차량이 관광코스가 얼마든지 되거든요. 1일 체크를 해보면 차가 몇대 안다닙니다. 사직공원 옆으로 해서 인왕스카이웨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 前 副議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李憲九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憲九委員 오전에 이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

습니다. 우선 무궁화 꽃길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위치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궁화 150주 식재하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1주당 106만 7,00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궁화나무가 큰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가로수가 없는 게 지하구조물 때문에 가로수를 못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 보고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라 했더니 30cm에서 40cm 정도는 토양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목가로수는 안된다. 방법을 연구한 끝에 무궁화나무입니다. 무궁화를 사실상 40cm인데 그냥 거기다 심으면 토양이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 깊이가 그래서 지상으로 한 20cm나 30cm를 보도블록을 튼튼한 거를 쌓아 가지고 거기다 심으면 무궁화는 관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깊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나무를 심는데 무궁화가 지금 이러한 시중에서 구하는 것은 만원, 2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되려면 가지가 많이 뻗은 건 안되고 외대로 올라와서 가지가 어느 정도 벌어진 것이어야 되는데 보통 2m 크기는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런 걸 구하려면 지금 소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 1주를 구하려면 4, 50만원 이상 줘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李憲九委員** 그렇게 비싸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 소재를 구해도 점차적으로 150주 집단적으로 심은 농장은 없습니다. 과다 계상이 됐는지 몰라도 조금 여유있게 계산해서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비는 없으니까 시비를 요청했는데 무궁화 식재계획은 또 국비사업입니다. 시사업도 아니고 국비사업이라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안을 행정자치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로수가 안되니까 무궁화 가로수를 심어보겠다 했는데 행정

자치부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를 얻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제가 소재하고 이런 여건같은 것을 다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무궁화 식재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李憲九委員** 이거를 106만 7,000원씩 들어서 심는다고 하면 육 태거리로 먹을 애긴데 육을 먹는 이유를 얘기해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천을 복개한 텐데 그래서 가로수를 못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를 그래서 처음 쥐똥나무를 심었어요.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훼손이 됩니다. 왜 훼손이 되느냐 하면 인도가 너무 좁아요. 너무 인도가 좁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2~30cm 조성해서 한다고 그 자체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사람 다니는 길이 좁아서 안된단 말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길을 1m정도 줄여 가지고 거기다 심으면 모를까 여기는 심을 데가 아닙니다. 내 동네 참 잘 해주신다는데 좋은 거지만 이것은 글썄요, 제가 보기에는 낭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吳錦南 前 副議長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화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번 대책을 그것도 지금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비발이 해놨는데 거기는 해놨다가 뜯어버렸습니다. 가로질러서 그래서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것은 아무튼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연구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두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安載弘委員님 말씀하신 공공근로관계인데 참으로 황학정부터 청운약수터까지 산책길 조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1기 때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이었던 손도균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석굴암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 노인양반을 위해서 산책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좋은 장소를 그냥 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 양반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던 차에 마치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돼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아마 우리 구비나 시비로 이것을 만든

다면 어렵도 없었을 겁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인 아카시아나무 벤 것을 없애는 것도 큰 힘인데 이것을 전부 계단으로 만드셨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자가 약간 부식이 됩니다. 다녀 보니까, 앞으로 이 부식된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이나 국장님! 무슨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앞으로 한 3년만 되면 그 나무들이 부식이 될 겁니다. 지금도 부식이 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을 잘 했는데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거기에 와서 이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러죠. 또 진입로가 나빠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국장님은 받으셨을 겁니다. 신교동 2번지 일대에 소방도로를 설치해달라는 지춘수 외 여러 사람이 진정서를 낸걸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신교동 일대인데 거긴 정말 소방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주 낙후지역인데 여기가 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풍치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내달라. 여기에 만약 소방도로가 생긴다면 자동차가 많이 올라오니깐 공원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공공근로자 얘기가 나왔는데 청운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한테 자연을 공부시키기 위해 수목을 이용하면서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 있는 풀을 뽑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하면 일석이조의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공감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던 침묵 부식문제, 앞으로 3~4년 후에 닥쳐올 부식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실제로 거기서 학생들이 꽃도 심고 풀도 베고 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해보

자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학교와 협의해서, 또 그렇게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여건을 좀 단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교동 2번지 소방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관 부서인 토목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 도시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李憲九委員** 고맙습니다. 그 다음 창성동 108번지에는 청와대 별관이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사시던 분들이 시끄럽다고 내집 사가시오 해서 작년까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가로 있으면서 그 집을 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범화가 되다 보니까 고정으로 경찰 2명을 배치시켜 놔줍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제가 왜 이걸 건설관리과 보상계에다 전화를 했더니 '조금 참아주십시오. 사실은 그것은 언제 보상이 끝날지 몰라서 정기에탁한 것이 7월 29일이 만기인데 만기가 되면 그것 가지고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 지나서 한참 있다가 지난 10월 달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그건 벌써 서울시 경찰청에서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문 있나 구 해서 공문을 받아 봤습니다. 공문을 받아 보고 바로 제가 진정을 했어요. 서울시 경찰청장한테. 당신네들 도대체 보상 다 해가지고 철거해야 할 돈을 왜 가져갔느냐? 뭐 하러 가져갔느냐? 4억 얼마예요 돈이 자그마치. 그래서 진정을 했더니 회신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그건 철거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종로구청이 기탁했다가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도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내년 예산에 철거비를 갖다가 계상해서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번 2001년에 도로개설에다 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길을 뚫어놓으면 이제 동네가 제대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이 길이 개설이 되니까 거기서 우리 구청한테 거저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안 들이고선 우리 종로구청에 떠넘기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도 그렇게 생각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니까 局長님! 서울시 경찰청에 부탁해서 빨리 철거해달라고 해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직접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소관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보상은 다 끝났고 이제 철거만 남아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보상건물에 대한 철거는 사업시행부에서 하거나 보상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이거 아주 골치 아프네. 한군데서 안 맞고 여기 저기서 서로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간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동료 국장님들께 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委員長 金福同 李憲九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弼根委員!**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대집행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인사동에 193건, 돈화문로에 181건, 대학로에도 51건을 단속했네요. 단속을 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네. 그렇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런데 우리 혜화동사무소에서 옆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간판을 붙여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딱 이렇게 붙여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횡포다, 철거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동사무소에서 수없이 철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는 원인이 뭐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吳弼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그 경위를 조사해보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수없이 제가 동사무소에 가셔도 이

야기를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수없이 올렸다고 하는데 課長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위치를 조사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동사무소에 딱 붙여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동 직원들이 돈을 먹고 철거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종로지구에 분수대가 몇 개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5개소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여기에 5개소 분수대 수리비가 1,000만원 잡혀있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吳弼根委員** 분수대 하나 수리하는 데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분수대에 보면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거 수리하는데 3만원씩 소요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물량을 50개정도, 마로니에공원까지 해서 5개 있는데 마로니에공원은 공원유지 관리비에 편성이 돼서, 여기는 4개소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수증등이 또 많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수증등 그것도 등을 설치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죠. 등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다 노후화 돼서 정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빨리 교체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수증등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당 한 5만원씩 50개정도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모터가 개당 100만원 합니다. 그리고 방수처리 하는데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吳弼根委員** 다음 412페이지에 녹지대 및 위험수목 제거장비 해가지고 동력톱 180만원 이렇게 있는데 2000년도도 구입한 걸로 아는데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력톱을 총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6대는 공원 관리하는데 쓰고 있고 4대는 녹지대 관리하는데 쓰고 있는데 저희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

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늘어날 형편이거든요.

○吳弼根委員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수비가 지금 보니까 기술·장비보수비 해서 150만원 책정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서 써서야 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해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샀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녹지대라든지 공원관리 장비가 상당히 퇴보적이어서 작년하고 올해 구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폐기처분되는 물량 외에는 별도로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정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吳弼根委員 이런 시설장비보수비, 수리비 또 동력톱구입비 이런 것도 이제는 계산서에 넣어주세요. 내년부터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시설비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라든지 시설비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산출기초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에어컨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어디어디 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각 공원마다 관리사무실이나 관리인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 설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갖춰주고 있는데 일부 갖춰주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로 지하에 세종로공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을 구매를 해줄 계획이고 냉·난방기는 인왕산수목원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줄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평난방기는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된 곳이 무궁화동산의 관리소, 그 다음 녹지4초소가 있는데 여기 아직 난방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런 정도가 설치되면 저희들 관리사무소 내의 직

원들 냉·난방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吳錦南委員 이렇게 적은 돈인데 이런 것까지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케이블TV를 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탑골공원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처음 설치된 배경을 보면 5공 때 청문회가 관심을 끌 때 그때 거기 계시는 노인들 보시라고 했습니다. 거기 노인 분들이 하루 1,000~3,00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청하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보면 비료구입을 작년엔 100포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300포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통상적으로 한포에 25kg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하다보면 보통 큰 교목은 한번 시비하는데 5kg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관목류에는 3kg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00포에서 금년도에 500포로 늘어났습니다만 실제로 재료비같은 경우에 재료비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편성된 대로 상황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세목이기 때문에 비료구입비가 조금 부족하면 조금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료가 100포 가지고 활용을 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들어간, 집행한 액 정도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500포 정도 반영했습니다.

○吳弼根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와룡공원 아시죠? 거기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화기애애하게 정말로 아침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좌판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를 팔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젠 거기에서 야채같은 것도 팔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모든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차라리 거기에다 깨끗한 가판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렇

게 어지럽게 놔두는 것보다도 가관점을 하나 차려 주면 주변정돈도 잘 되고 또 와룡공원도 깨끗이 정돈이 될 것 같은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현장상황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관대를 설치하게 되면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리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관대를 설치했을 때 문제는 그걸 어떤 특정인에게 불하해줄 수 없고 위탁관리를 해야 돼서 임찰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도 드려보고 주민들 말씀도 듣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원 내에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유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다 매점을 그냥 넣어야 합니다. 그냥 임의설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다 관리사무소를 짓고 화장실 짓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짓자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관계상 그것이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일정한 장소에다 매점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에도 저희 관내에 매점이 있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설치가 되면 사용하는 사람은 그 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관대를 설치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우리 公園綠地課長님께서 거기를 찾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시에 보고해서 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매점이라던가 그런 판매

대를 꼭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교남, 무악지역이 상세지역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로 원안가결되었지요? 그런데 상세지역으로 지역이 지구지정되었을 때 토지이용계획서나 공부상에 표기된 적이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매면 지구단위계획위반지라고 해가지고 규제사항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게 해제가 됐으면 공부상에도 빨리 해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그 절차가 지난 11월 30일 서울시고시로 고시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고시가 되면서 오늘 날짜로 저희들이 지적과나 동에 보냈습니다. 그건 공부상에 삭제가 됐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오늘 날짜로 삭제를 시켰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지금 각과에 통보가 됐으니까 그 고시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고시가 2000년 11월 30일자 335호로 고시가 되니까 그 내용을 지적과에 주면 하나 하나 공부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하루속히 공부상의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등은 아파트 주민 책임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아파트단지 밖의 가로등이라면 저희 구청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방금 吳錦南委員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자매결연도시기념공원조성이라고 해서 2억이 책정됐는데 그 지역 의원이 생각할 때도 아주 흥물스러운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쟁겨서 해준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임시로 축대보수만 하고 장기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어야지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상당히 부족합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예산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웬만한 일은 제 지역에 예산이 배정돼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약 3,000㎡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 금년 본예산에 2억 5,000을 투입하고 명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가 형식적인 공원을 만든다면 그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명심하셔서 아름답게 단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의제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만 무악동의 동은 행정동에서 관리하고 법정동은 행촌동으로 210번지 아마 철거보상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로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택철거를 말씀하십니까?

○丁炳煥委員 행촌동 210번지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철거했던 데 있죠? 그걸 언제 집행할 것인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내년쯤에

○丁炳煥委員 보상은 다 끝났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丁炳煥委員 그리고 그 지역 의원으로서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거기가 문화재와 접한 지역이고 아주 훌륭한 지역인데 아름답게 단장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局長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추후에 공사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자매

결연기념공원조성은 기왕 할 바에는 가지적으로 하지말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朴鍾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綠地課長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몇달 안됐잖아요. 그런데 대학로에 가보면 가로수 화단을 막아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또 원예전문가인 내가 봐도 그렇고 완전히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심겠다고 결재 결의권을 물으러 담당공무원이 나한테 왔을 때 '거기서 나무가 잘 살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사람 난입지역이라 나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습니다 하는 답변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내가 썼어요. 쓰고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심는다고 그래서 내가 쓰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밝아서 전부 죽어버리고 1/3은 다 죽었어요. 그 이전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지만 대학로 주변에 철죽을 한 6,000주 심었어요. 그 6,000주가 토탈 500주도 안 남았고 다 죽었어요. 그걸 보식을 시키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보식을 안 시키는 바람에 구정질문에까지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녹지과에서 야단맞은 일이 있는데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까 李憲九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무궁화 150주에 1억 6,000 들여 가지고 사람들 다니는 인도 변에다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면 1억 6,000이 아니라 1,600만원을 들였다 하더라도 환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좀 세부적인 예산을 짜야 되는데 모두 주먹구구식이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궁화를 50만원 정도 주고 산다고 한다면 1억 4,92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 4,925만원이라고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조금 더

신빙성있게 공감대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나무 150주에 1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놓으니까 자꾸 안경을 쓰고 보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관 공서에서 예산을 좀 정확한 사사오입식으로 2,500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3,000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가로수 자를 때 쓰는 장비 있잖아요? 고가사다리랄까 시 것입니까? 우리 구청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현재 구청에 가로 전지하는 건 아니고 고가사다리가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전지할 때 그 차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예. 그 차가 나갑니다.

○朴鍾植委員 톱으로 하고 가로수관리계에 공공근로자가 몇명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공공근로는 지금 현재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4, 5명씩 지원을 나가고 상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우리 지역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가로수 자르기를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로수관리계의 공공근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가로수를 자르는데 우리 장비가 나가고 우리 공공근로자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녹지과 직원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경비는 뭐예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지금 현재 저희가 상용인부가 있는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朴鍾植委員 잡부가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나무에 올라가서 자른다 그러면 한사람이 하루에 한 나무밖에 못잘까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한 나무만 자르는게 아니라 큰 나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작은 나무는 여러 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자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朴鍾植委員 우리도 롯데월드랄까 신라호텔이랄까 이러한 데 외부정원 일본말로 센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청을 맡아서 가로수 한 나무 전지

하는데 8만원씩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물론 장비가 없다면 장비 사용료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가로수 하나 자르는데 8만원씩 500주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무궁화 한 주에 50만원짜리라면 내가 지금 전적을 뽑아보니까 1억 4,925만원이 나와요. 무궁화는 거의 옮겨 계산이 됐는데 가로수 한 나무 전지하는데 8만원씩 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 그제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8만원은 한 주당 따지면 8만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조경공 1인이 5만 3,000원 정도 잡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급줄 경우에는 일반 경비에서 40%이상이 들어갑니다. 실지로 자르는 인원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60% 보면 맞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100%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이 인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실제로 작년에 저희 장비를 가지고 전지작업을 해봤는데 실제 가로수들이 지금 저희 종로관내의 가로수들이 도심에 있고 그래서 전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전지를 덜 하느냐,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근로 중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 외에는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상용인부도 마찬가지로 소방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도 제대로 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주 외주 발주를 쥘서 전지를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은 다소 높게 편성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동네에서 업자를 불러다가 공사를 시키는 것보다 똑같은 공사를 할지라도 저희들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공사,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쓰더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비로 책정을 해서 계약할 때 15%가 깎입니다. 85% 안쪽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 삭감이 되니까 그 85% 속에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 1억원이 책정되었다면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7,500만원 정도 선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 예산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해 예산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런 예산 순환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맞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이렇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래서 지금 무궁화 150주를 심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무궁화 한주에 50만원짜리 심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마사 객토가 약 50루베 들어가고 거름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예사 인건비하고 준원예사가 있어요. 잡부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조경공사라고 하면 또 공과잡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공과잡비가 들어간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요. 그렇게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1억 5,000이 나오긴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1억 4,925만원이 나오는데 조금 예산을 세울 때 예산가를 높이 잡아 가지고 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아까운 혈세인데 소상하게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참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드리면서 제 말을 그만 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朴鍾植 前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吳錦南 前 副議長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吳錦南委員 너무 임포를 주시는 것 같은데 吳錦南委員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관내의 가로수에 은행을 얼마나 수거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셨는지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4,000주 이상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은 10% 내외밖에 안됩니다. 때로는 주민들이 새치기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금년에 우리 상용인부를 동원해서 한번 뺐습니다. 따서 정산을 해보니까 약 240kg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녹지사업소에서 종자용으로 쓰게 해달라고 해서 각 구청에 80kg씩 보내달라 해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80kg를 시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kg는 제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관내의 양로원에 전달해주십사 하고 사회복지과에 인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양로원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행사가 10월달에 있었죠. ASEM이죠. 9월 27일날 일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본 위원이 광화문사거리를 지나서 이순신 동상 있는 데로 해서 아침에 출근 겸 해서 어디를 가는데 아마 제복을 보니까 공공근로요원 같아요. 두분하고 직원 하나 같아요. 의복을 보니까. 광화문동상 대로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그 은행나무를 장대를 가지고 은행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들은 척 만척 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가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은행을 수거를 하라고 했다. 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관찰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은행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조치를 해주라. 못따게 해주라. 그래서 그분들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그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도 가장 먼저 시들어버려요. 다른 나무는 노랗게 이파리가 들고 은행이 노래서 아주 아름다운데 더군다나 국제행사가 있는데 그 두 나무는 장대로 해서 두들겨서 은행을 따 그 나무는 아주 헐벗어져버렸습니다. 여러 나무 중에서 그러니 외관상으로 보기에다 나쁘고 앞으로 국제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 은행을 따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담당자인지 몰라도 서울시에서 따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본 위원이 그랬어요. 과거에 몇년 전에도 종로구 전부 수거를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50만원밖에 수확을 못했다.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는데 우리 종로구가 350만원이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은행을 따서 보기 흉악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자연 그대로 단풍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행을 하나도 줌고 아침 일찍 나와서 어느 정도 주워가는 것도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몇십만원, 몇백만원 때문에 은행을 따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에서 하라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로서 전화를 끊고 말씀합니다마는 그 다음 다음날 되니까 또 추사로쪽에 종로구청 아까 말씀드린 무슨 전기공사 하는데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하는 것 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또 따고 있어요. 추사로 옛날 신일약국 있는 데 거기도 따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한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종로구청의 담당자들이 한심스럽다. 왜, 국제행사가 있는데도 더군다나 꼭 청와대 들어가는 골목들만 은행을 따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보고 놔둬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나 그랬더니 은행나무 몇나무 따고는 철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앞뒤를 살펴보고 지시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행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거를 좀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혹시 그러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전혀 반대한다는 얘기를 서울시에 얘기해주세요. 그것은 참으로 보기 아주 안좋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게 추사로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은행이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그 도로에 은행이 처음 열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장대로 뺐습니다. 그 나무가 가장 먼저 시들고 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폐단이 나무에 온다는 거죠. 그래놓고 가로수 보수를 하면 뭘 하고 가로수를 심으면 뭘 하겠

습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참고로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종로구의 인사위원장이 누구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으로 계십니다.

○吳錦南委員 인사위원 되신 분들은 국장님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국장님들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외부인사 몇분이나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외부인사가 두 사람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종로구가 금년에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니면 외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몇가지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아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제가 빠트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선 최근부터 더듬어서 올라가다 보면 우선 시민만족도 이것은 겉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문제연구소 일반 여론조사기관에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문을 해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 저희 구가 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1위를 한 것인데 2년 연속해서 1위를 한 것이고 세무분야에서 2위를 해서 5억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ISO 국제표준기구에서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MC 텔레포퍼먼스사라고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기서 친철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 종로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등 여러 가지 민간기업까지 동시에 평가한 결과 저희 구가 1위, 대한생명이 2위, 호텔신라가 3위 이렇게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기타 아름다운 서울 가꾸기 1위라든지 청소분야 화장실 개선분야 우수구라든지 각종 행정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얻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저희가 우수구 내지는 1위 최우수구

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어쨌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수구로서 선정이 되고 또 많은 대외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리에 있을 때 뭔가를 잘 해주셔야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당이 안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건축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MBC 9시 40분 뉴스에 톱으로 건축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걸으로는 어떻게 간에 속으로는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선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 곳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거니까 물론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러고도 그러한 분이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좋은 이름을 종로구에 좋은 본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의 충고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소관 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명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MBC의 보도사항이나 또 서울시의 감사사항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부풀리거나 자기들의 기획 의도대로 보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하고 같이 했던 모 과장이 물론 잘못을 했던 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계장으로서 약 3년 가까이 맡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무도 맡기 힘든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어렵고 생활 여건이 안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막무가내입니다. 우리 법대로 짓게 해달라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업무처리도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면도 있고 물론 일을 하다 보니까 몇가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자하고는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9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감사관은 감사관의 시각대로 보지만 그게 정확한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9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창신동 지역의 여러 필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한 필지를 지으려면 민영주택사업으로 20세대 이상 해가지고 민영주택사업승인으로 지어야지 왜 나눠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따라서 짓도록 했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과장이어도 나는 그렇게 짓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 지역에서 정말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개발도 안되고 건축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상 특혜를 주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좀 덜 들고 자기 새집 하나 짓도록 4층, 5층 지어 가지고 자기 한 층 가지고 나머지는 업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주는 게 주거환경개선법인데 이론적인 이상만 가지고 한 필지에 민영주택사업 지으라고 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도 확보해야 되고 녹지율도 확보해야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렇게 얹고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

하시는 성냥갑집이 나오는 겁니다. 성냥갑집 4층, 5층 20㎡짜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7세대, 8세대 합필해 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나는 이렇게 한다. 감사를 또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것은 지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 일부 한두 개 지적사항도 있고 시정할 사항도 있는데 그 분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그런 정도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감사실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입각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현실보다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 이상을 설정해놓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점을 참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감사관은 이상적으로 본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에서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이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징계까지 사실 과장을 징계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 일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근무하면서 정말로 누가 되지 않도록 조직이나 구민이나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일을 해달라는 그러한 충언과 격려로 알고 저와 앞으로 여기 있는 과장 네사람과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129명 전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MBC 뉴스에 나온 것이 좀 이해가 갑니다. 또 한편만 듣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인데 마치 오늘 국장님이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가고 또 이러한 일이 사전에 누출이 안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민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일부 위원님

들이 좀 의문 가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짧게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安載弘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도시관리국장께서 吳錦南委員님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좀 제가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썄 감사가 서울시에서 누가 나와서 감사를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는 실정법을 놓고 감사를 해서 그 행정행위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어떻게 이상적으로 흐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이상을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물론 감사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安載弘委員 잘못된 것은 잘못을 따랐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견책을 받고 하는 거지 뭐 그러세요? 잘못이 있으니까 견책을 받는 거지 만약에 잘못이 없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해야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실제 잘못된 것보다 더 비난을 받고 있고 더 잘못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당연히 잘못했고 잘못된 만큼 처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 잘못을 다시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렇게 변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분은 잘못을 했죠. 다른 것을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李憲九委員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지금 플래카드가 굉장히 아름다운 종로를 많이 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李憲九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집합체를 만들어서 일정한 장소나 위치를 정해 가지고 걸게라고 그러나요? 계시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화문 바로 앞에도 보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타니까 굉장히 많은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난잡하게 세워지는 것 보다는 계시대를 만들어서 집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인데 어떠세요?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이미 저희들은 금년초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현수막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거리라든가 모든 적재적소에 20개소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저희 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관과 시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개는 너무 많다 해가지고 7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가 갑자기 회사가 처음에 세신애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분이 재정난으로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스타트21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 안에 세군대를 설치하고 내년에 4군데 설치하면서 점점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금년에 시도를 했는데 실지 물건이 서지 않다 보니까 현실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고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 같아요. 도시계획과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는 사실 河局長님이나 우리 鄭課長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사실 종로구 같이 정말 오래된 도시에 도시계획은 정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의 정원하고 현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제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이 배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河局長님! 도시계획과를 좀 이렇게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또는 도시관리국에서 정말 기획부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로를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장기적으로는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가 좀 증원이 되거나 현원이 좀 늘어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도시관련 행정에서 사실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시계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확정이 되고 나면 다소 불합리 하더라도 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수립되는 차체에 정확하고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획만 하고 계획만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행정의 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다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직원이 실제로 있다 보면 저 자신도 직원들이 있어도 그러한 임무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민생, 직접적인 민원 이해관계에 얽힌 이러한 민원업무 처리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독려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직원을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입장이고 저희들 생각으로 도시계획과의 직원이 증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직이라는 게 전체 조직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

에 저희들 욕심만 채길 수는 없고 인사부서에 합리적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부서가 인원이 좀 충분한 인원이 되어 정말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2001년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좀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고맙습니다.

○安載弘委員 또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지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불법 플래카드를 수거하시면 처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나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安載弘委員 처리를 하시는데 어디다 갖다 버리세요?

수기 15:38-16:00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사실 이번 예산에도 그걸 반영했습니다만 그걸 차로 싣고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적치장소에 가서 같이 적재를 하다보면 결국 김포매립지에 버립니다. 그 내용도 이번 예산에 넣어서 이젠 합법적으로 같이 창고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적치하고 있는 창고에 같이 보관을 했다가 김포매립지에 버릴 수 있도록 그 수거료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그 수거해서 집합하는 장소가 구기동 139번지 일대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건물을 보면 아름다운 종로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기동 139번지 일대는 사유지이면서 국립공원 입구예요. 그리고 잘 가꾸어진 주택이 입구인데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약 6개 필지를 사용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종로가 무색하리만큼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통신공사와 관련된 업체, 재활용 관련 업체, 토목과, 하수과 그 다음 청소과, 문화진흥과, 도시계획과,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타리라도 금년 예산서에 보니

까 동대문 이대병원 있는데 그 울벽 담장을 2,000만원인가 들어서 울타리를 칠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지아이판넬로 전부 싹 바뀌어서 칠하고 하면 주민도 좋고 사용하는 여러분들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98년도부터 오늘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局長님! 그 이지아이판넬 얼마 안 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하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하고 업무 관련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제가 창고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課長님이나 局長님과 의논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아름다운 종로의 이미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까지 소규모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관련된 공문이 온줄로 아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24건입니다.

○安載弘委員 그 이후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그게 한시범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통과가 됩니다. 12월 16일까지 접수되도록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럼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등기가 되는 거죠.

○安載弘委員 '98년도인가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초까지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일제정비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20년 가까이 한 18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실제로 소규모 필지 소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범법자가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하는 그런 꼴을 당

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건축과나 도시관리국에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81년도 11월 31일 이전에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도에 저희 區廳長님이 전체적으로 옛날처럼 다시 한번 살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발의를 해서 구청장회의에서 전체를 날인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 건의해서 사실상 그 때에 우리가 건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살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된 게 25평 이하로 됐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 종로구에는 굉장히 많은 유흥업소들이 많은데 그 많은 건물들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난방도 많이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천 노래방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그랬고 했는데 이러한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건축물점검을 해본신 적 있으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이건 소방소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금년 실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금년에도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그거는 소방소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걸 각 부서별로 나눠줍니다.

○**安載弘委員** 몇 건이나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한 열댓 건 정도 됩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종로구에 있는 건축물이나 유흥업소는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는 없겠네요?

○**建築課長 李漢求**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安載弘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구요 局長님한테 건축과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거 같은데 課長님! 일일 평균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1일 한 30~40명 됩니다.

○**安載弘委員** 월 평균 1,000명 가까이 오겠네요? 지금 종로구가 굉장히 많은 건물과 민원실을 리노베이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1,2과, 별관 1층의 민원실 지적과, 그 다음 여권과도 아마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과도 있고 그런데 유독 왜 우리 방문객이 적지 않은 건축과 민원실도 리노베이션 하지 그래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갈텐데. 지금 조도가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조도도 좀 높이고 의자도 놓구 한다고 해서 얼마 들어갈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건축과가 다른 사무실에 앞서서 사실은 리노베이션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과거에 좀 빨리 했어요. '97년도인가 그런데 타 민원실에서 손을 안댈 먼저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민원대 배치도 3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과는 좀 달리 되어 있고 그나마 3~4층에 있는 사무실 중에는 좀 깨끗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조도문제라든지 집기, 의자 재배치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세요. 기왕이면 어차피 전체 건물이 리노베이션 되고 있으니까 조도라도 밝게 하거나 의자, 소파, 민원대이라도 개선한다면 포괄적인 토털 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하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녹지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중의 한 부서입니다. 청소과하고 해서 녹지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포괄적입니다만 동묘의 화장실을 수리하면서 2억 4,000만원 가량을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어난 평수가 40평이잖아요. 그럼 평당 한 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네.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동묘의 화장실이 15평을 증축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어

요. 그럼 그 화장실과 그 화장실은 소위 등급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漣 동묘화장실은 한식입니다.

○安載弘委員 동묘화장실이 1억 5,000만원 들어갔고 이천 40평에 약 1억 4,0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자 발생한 건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漣 하자는 주로 수도꼭지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버튼스위치라든가 기타 이런 게 그런데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漣 그건 아예 수동으로 바꿔놓을 정도로 이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고장이 잘나요.

○安載弘委員 그리고 사직동에 있는 화장실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셨더라고요. 사직공원 화장실 증·개축예산이 이게 거기서 주신 건데 이 자료가 맞다면 여기에 보면 증·개축비가 4,8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이 자료가.

○公園綠地課長 俞樂漣 네.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사직공원 증·개축비 예산 잡힌 것이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로 집행된 건 4,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 봄에 약 1억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8,500 정도 공사비가 투입된 걸로 아는데 이 집행 내역을 4,831만 6,000원으로 작성한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집행 내역을 작성하는 방식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지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한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금년도 10월에 준공된 흥계천 정비사업지구의 소공원입니다. 10월에 준공됐는데 나무가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課長님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천

하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다시 심겠죠? 하자이행각서나 그런 걸 제출했겠지요. 중요한 것은 10월 달하고 지금 12월인데 한달, 또는 두달만에 이렇게 다 죽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죽은 건 이 사람들이 하자이행을 하면 구에서는 손해날 게 없겠지만 전제로 보자 이거죠. 전제로 볼 때는 정말로 얼마나 막대한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적어서 課長님을 보여드리느냐? 그 전의 과장님은 가셨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는 개선하자 이겁니다. 이것도 나무를 심고 또는 준공을 내기 전에 현장에 가서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는지, 나무를 받쳐주는 지지목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정말 최초에 나무를 심을 때 그 토양이나 시비 자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됐다면 여기를 보면 느티나무, 소나무 말라죽은 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는 일은 하지 말자 제 뜻은 그겁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漣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소관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도시관리국에서 한 건 아니고 건설국에서 한 건데 저희한테 처음부터 조경관계를 협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든 시공감독을 하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따지긴 뭐합니다만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한 적도 없고 준공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현재 상태로는 관리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녹지분야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희가 챙겨야 할 일인데 아직 저희한테 관리이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課長님 답변은 종로구청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거지요? 그렇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漣 소관을 따지면 안됩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이거는 토목과인가 그쪽에서 가서 나무도 살려놓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국, 또는 건설교통국이 잘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 구하고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니까? 물론 국하고 관련된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공공근로하고 관련된 부분은 종전에 한번도 안 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만약 **河徹昇**局長님이 제가 얘기한 걸 참고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실제로 잡혀진 예산을 절감했다면 이것은 정말 공공근로를 이용한 예산절감에 커다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근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 해주셔서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 그야말로 공공근로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도시공원관리비 중에서 물품구매 신청하신 걸 보니까 에어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국에서나 과에서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구매요청을 할 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올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물품을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합니까? 내부의 절차 말이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내부의 절차는 행정적으로 하는 건 없고 저희 과에서 각 팀에서 장비가 부족한 게 뭐냐 해가지고 과에서 일단 책정을 해서 결재를 거쳐서 예산과에 요청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러니까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우선 정수물품 책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품구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책정한 다음에 구매요청을 하게 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安載弘**委員님께

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다 쓰고도 저희 공원이 한 40여 개, 관내 녹지대가 20여 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량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원의 청소불량문제라든지 공원관리의 어려운 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局長님!** 좋은 말씀이에요. 제 입장에서 본 위원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자 이견 아닙니다. 이견 아니고 우리가 올라온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이게 뭐냐하면 북악스카이 노후펜스 정비 1,000만원 이것도 공공근로로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유실수단지 내 수목이식사업 및 인건비 1,500만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첨부된 것 전부를 공공근로로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시사역노임을 투입하면서 공공근로도 투입해보자 이거죠. 노임이 틀리잖아요. 공공근로는 2만 1,000~3,000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3만 3,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비교해보자 이거죠. 사업의 능률성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어떤 교육이랄까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으니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서서는 10시까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第107回 鐘路區議會 定例會 第2次 財務建設委員會를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散會)

○出席委員 9人

吳弼根 崔康洵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金以煥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住宅課長 姜仁豪
建築課長 李漢求